

3대 가공노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성찰

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(이후 가공노) 3대 가공노 사무총장(이재현) 임기 말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한다. 아울러 가공노는 앞으로 옳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좋은 정책과 이익되는 방향으로 조합 문화를 만드는 것에 모든 역량을 쏟고자 입장을 낸다.

지난 해 24년 12월 3대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11월 말 12월 초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였고, 3대 위원장은 12월 탈퇴자들을 모아 연말에 처리하기 위해 서류만 받아 둔 채로 있었다. 그러던 가운데 3대 사무총장은 12월 말 즈음에 탈퇴서를 회수했고 동시에 3대 위원장으로부터 점심 한 끼 산다는 명목으로 반납했던 법인 카드도 받아 갔다. 몇 일 뒤 24년 12월 30일 가평읍 일원 모 식당에서 8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고, 24년 12월 31일 농업정책과 전체 식사비용으로 확인되었다. 이후 25년 1월에 3대 가공노 사무총장은 다시 탈퇴서를 제출하였다.

우리 4대 가공노는 이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성찰하고 자정해야 한다.

첫 번째, 조합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가?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전체를 두루 살펴야 하는 가공노가 어떠한 명분도 없이 특정 부서에 연말회식을 지원하는 것이 조합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.

두 번째, 부서 식사 지원이 양심적인가? 농업 직렬이자 농업정책과에 적을 두고 있는 사무총장이 소속 부서 전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인지 고찰할 부분이다.

세 번째, 사회적 통념에 해당하는 행위인가? 사무총장 임기 말 1일 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월 사용 한도를 넘길 정도로 큰 비용의 업추비 사용이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.

이에 4대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출범 후 14명의 운영위원들과 치열한 논의 끝에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명문화된 입장문을 통해 행위자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.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.